

전남, 휴양 전원마을·은퇴도시 메카된다

도, 무안 월선·진도 명량지구 등 455가구 건립 투자 협약

베이비부머 겨냥 도내 5년간 정착촌 55곳 조성 본격 추진

전남도가 베이비부머를 겨냥한 휴양 전원마을 및 은퇴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철주 무안군수, 이동진 진도군수, 조남철 가산토건 대표이사, 최영철 명량 전원마을 입주자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 월선 은퇴도시와 진도 명량

지구·산해뜰 지구에 휴양 전원마을 455세대를 건립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남도와 진도군이 사전에 입주 예정자를 모집한 후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체결한 것으로 기존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인 분양률 저조를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진도군은 명량지구와 산해뜰지구에 대해 군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 조성을 실시해 택지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인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명량지구는 배산임수형의 남향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접하고 있는 택지다.

을 투자해 한옥형 주택 53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산해뜰지구는 진도를 산월리 일원 11만5084㎡에 219억원을 투자해 전원주택 152세대를 짓는다.

또 가산토건은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일원 48만1200㎡ 부지에 505억원을 투자해 250세대 규모의 한옥 및 전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힐링센터와 건강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협약식에서 “휴양·전원마을에 새롭게 동지를 트는 입주주민들이 남도의 훈훈한 인심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도시민의 귀촌 수요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5년간 55개소의 휴양 전원마을과 은퇴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 도시민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2008년부터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땅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활용해 도시민 유치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에만 3400여명의 도시민을 유치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만권 739억 국고사업 발굴

경제자유구역청, SOC 시설 확충 등 21건 지원 요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739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고지원 사업을 발굴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고지원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수적인 SOC 시설 확충 등 739억원 규모의 핵심사업 21건을 발굴해 국비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인화 행정개발본부장은 이번 회

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SOC 시설 확충 및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가 절실한 만큼 차질없이 국비가 확보되도록 대응방안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 추진과 중앙부처 및 국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정부 예산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연

말까지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자”고 주문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보고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이회복 경제자유구역청장 주재로 24일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고지원 건의사업을 최종 확정해 전남도 및 경남도를 거쳐 중앙부처 관련실국에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국비 9건 382억을 확보해 기반 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농산물 전자상거래 전문가 육성 교육

도농기원, 마케팅·홍보·블로그 운영 등 250명 대상

전남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적응력을 높이고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 전문가 육성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교육은 마케팅·홍보 4개 과정, 블로그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교육 4개 과정, 친환경농산물 유통현장 교육 1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2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남 농기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생산능력은 소

비자와 직접거래로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새로운 IT정보기술을 농업경영에 접목해 사이버판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 SNS 활용’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기도 했다.

도내 거주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이번 교육 대상자는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50%, 시군 추천 50%로 선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성 5일시장

군, 새 명칭 공모

보성군이 오는 25일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개장하는 보성을 5일시장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

보성군은 23일 “3월 개장을 앞둔 보성 5일시장이 차별 등 지역 내 관광 상품과 녹돈 등 풍부한 먹을거리를 활용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인지도가 높은 시장 명칭을 공모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공모는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보성을 5일시장 명칭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팩스·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 유망특화작목 ‘하니봉’ 수확 한창

고흥군 일대 농가에서 군 유망특화작목으로 육성되고 있는 ‘하니봉’ 수확 작업이 한창이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하니봉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당도 이상 상품만 출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흥군은 생산농가들이 올해 250t의 하니봉을 생산해 26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아동·청소년·가족 문화예술교육 담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단체 모집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아동, 청소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제 수업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사업비 4억4000만원을 투입해 섬지역과 농어촌 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대상 지역을 1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또 섬과 해양을 주제로 전남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토요문화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문의는 전남문화재단(061-280-5831)로 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급증

여수지역 2년새 2배로 늘어 주의 요구

혹독한 취위와 함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여수소방서 화재조사반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발생한 계절용 기기 화재 중 나무·목탄난로 화재는 모두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에 17건에 비해 1.4배, 2010년 12건과 비교하면 무려 2배나 증가한 것이다. 2012년 겨울철에 들어서도 16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화목보일러 화재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나무·목탄난로 화재 가운데 11건(45.8%)이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집계돼 화목보일러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소방서 화재조사반은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연재를 이용한 보일러실 설치, 빨간과 2m 이상 간격 유지, 연통 주변 단열판 설치, 보일러 주변 소화기 비치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배 멀미 승객 무료 승선 기회 준다

(주)한일고속, ‘블루나래호’ 취항 1주년 기념 이벤트

여객 및 운송전문 기업 (주)한일고속(대표 최석정)이 블루나래호(사진) 취항 1주년을 기념해 ‘블루나래에서 배 멀미하면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배 멀미 때문에 배타고 가는 제주도 여행의 낭만을 상상하지 못하는 승객들에게 무료 승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 19일부터 2주간 배 멀미가 심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일고속 홈페이지(www.hanilexpress.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



료 승선 이벤트는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블루나래호는 현재 제주도와 내륙을 오가는 여객선 중 가장 빠른 패속 카펠리로, 완도와 제주도 구간에서 운항중이다.

/원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참깨 화단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안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빈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뒤흔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축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축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백1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